

경상계열 대학생의 취업의식 실태조사:^{*}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혜숙** · 송선옥***

요 약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와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고학력 실업률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학생의 취업은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경상계열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별, 학년별, 성적별 차이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 차원의 취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의 취업지도와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에 의한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결정 및 취업안내 프로그램의 신설이 요구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3학년을 취업준비의 시기로 생각하고 있고,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대략적이거나 구체적인 취업방향을 결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나 취업준비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발달적 차원에서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경상계열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비하여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취업준비 활동이 “관련 자격증의 취득”, “외국어 능력 배양”, “전공공부와 학점관리”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의 취업 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취업준비 지원프로그램의 확충이 요구된다. 셋째,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센터(부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다양한 취업정보의 확보는 물론 각 기업체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및 각종 취업 관련 정보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과 교수들의 적극적인 면담과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산업체 방문을 통한 양질의 취업처 발굴 등의 실질적인 취업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 취업의식, 경상계열, 취업활성화 방안

* 논문접수일 2011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2일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과 한국산업경제저널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함

** 제1저자, 혜전대학교 교양과 교수

*** 제2저자, 혜전대학교 무역유통마케팅과 부교수

I. 서론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취업 및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결정하고 자아실현을 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생활양식과 가치관 및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중학교 단계는 직업적 역할과 자아개념을 구체화하는 진로 탐색기이며, 고등학교 단계는 진로 목표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진로 준비기이다. 그리고 대학교 단계는 전문적 직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진로 전문화기로 정의하고 있는데(김충기, 2001), 특히 대학생 시기는 청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발달과제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진로선택과 준비행동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통한 대학입학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학을 하고,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 진로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취업진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더 큰 진로 갈등 및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에 입학 한 후에도 취업 및 진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인적, 시설적인 여건을 대학 당국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대학의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단순 취업정보 및 이벤트성 세미나 중심의 서비스만이 제공될 뿐이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취업진로지도 실행평가와 피드백의 과정은 전무한 실정이다(이용자, 2004). 더욱이 고유가, 고물가,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업기회가 감소되면서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취업 및 진로의 선택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고용구조의 변화 및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지도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취업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취업준비와 관련한 조사 연구로는 진로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및 4년제 대학 위주의 취업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등의 연구가 적지 않게 수행되어 왔지만 특정 계열(특히 경상계열)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 성적별 취업진로 의식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경상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성별, 학년별, 성적별 취업의식 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취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취업지도와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의 목적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를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진로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Ginzberg, 1951); Super, 1957); 미국 교육부(U.S.O.E)³⁾).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당수의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 중에 느끼는 가장 큰 고민거리로 진로문제를 꼽고 있는데, 이재창(1995)의 연구에서는 37.7%, 고경희(2003)의 연구에서는 72.4%, 조혜영(2010)의 연구에서는 45.7%가 진로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취업진로지도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고학력 대졸자 실업율이 날로 심각한 상황

- 1) Ginzbergs의 진로발달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공상적 단계, 시험적 단계, 현실단계의 순으로 발달한다고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현실단계가 18세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에 해당되는 시기로 대학생이 이 단계에 속한다. 이시기는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로서 자신의 진로선택의 기회를 찾아내고 노력하는 단계를 거쳐 직업목표를 정하고 내·외적 요인을 종합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시키는 반면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시기라고 하였다(Ginzberg, E., *Occupation and Choice*, Columbia University Press(NewYork), 1951).
- 2) Super는 진로발달 이론에서 직업발달의 개념을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 등과 같은 개인의 발달 과정으로 보고, 이를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 및 그 변화와 관련짓고 있다. 그는 직업발달 과정을 성장기-탐색기-유지기-쇠퇴기로 나누고 있는데, 대학생의 시기는 탐색기(15-24세)에 해당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을 통해서 자아검증, 역할수행, 직업적 탐색을 시도한다. Super는 대학생으로서 진로발달 단계에 적합한 직업발달 과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탐색기에는 흥미와 가치관, 능력 등을 알아가면서 직업목표를 만들어 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점점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직업분야를 선택해 가며 그에 맞는 훈련을 받고 직업에 입문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Super, D. E., *The Psychology of Careers*, Harper & Row(NewYork), 1957).
- 3) 미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진로교육 모델에서는 진로교육을 진로인식(career awareness)단계,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단계, 진로준비(career preparation)단계, 진로전문화(career specialization)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4단계 중 대학생 시기는 진로준비단계(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대학졸업까지)에 해당하며, 이 단계의 진로교육의 목표는 전문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에서(<표 2-1> 참조)⁴⁾ 각 대학마다 대학 실정에 맞는 취업지원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학교 전반적 차원에서 취업 진로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소재 4년제 대학 경상계열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학년별, 성적별로 취업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경직된 취업지원 서비스가 아닌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취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1> 대졸 미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	2007	2008	2009	2010
남	149	151	140	150	142	158	162	177	164	201	204
여	67	70	72	93	98	103	110	98	104	120	142
합계	216	221	212	243	240	261	272	275	268	321	346

자료 : 통계청(<http://kosis.kr>) 자료(2011. 10. 28)에 의거 작성함

2. 조사대상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전·충남지역 소재 20개 4년제 대학의 경상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조사기간 동안 회수된 응답지는 총 293부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2부의 응답지를 제외한 291부의 응답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2>은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한 내용이다.

전체 유효 응답자 291명 중 성별에 따른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는 147명(50.5%), 여

4) 1997년말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업들의 채용관행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신규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신입직원의 채용보다는 경력직의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정기 공채방식에서 인재풀을 통한 수시채용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의 경우는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가 7.7% 감소한데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는 무려 17.0% 감소하는 등 중·장년층에 의한 청년층 일자리 대체현상으로 고학력 대졸 실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강길훈, “효율적인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논총 제9호,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자는 144명(49.5%)으로 비교적 고른 성 분포도를 보였고, 학년 분포도 역시 3학년이 153명(52.6%), 4학년이 138명(47.4%)으로 학년별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성적 분포도의 경우 총221명(75.9%)이 학생들이 3.0 이상의 성적 취득자로 응답하고 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반 기업체 추천시 최소자격 요건 이상의 성적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표본의 특성

(n=291, 단위: 명,%)

구분		응답자 수	구성비
성별	남	147	50.5
	여	144	49.5
학년	3학년	153	52.6
	4학년	138	47.4
성적	3.0미만	70	24.1
	3.0이상	221	75.9

3. 조사내용

경상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의식 실태조사를 위하여 류진혜·김정수(1998), 조혜영(2010), 임정섭(2008), 김경순·김두화(2009)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표 2-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인을 제외한 4개 영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표 2-3> 설문문의 구성내용

측정요인	측정문항		
일반적 특성	① 성별	② 학년	③ 학교성적
진로의식	① 대학진학 목적 ③ 학과 만족도	② 학과선택 동기 ④ 현재의 고민	
취업준비 현황	① 최적의 취업준비 시기 ② 본인의 취업준비 상태 ③ 취업준비 행동 ④ 취업준비 애로사항 ⑤ 취업정보 획득 경로 ⑥ 취득 자격증 수 ⑦ 취업할 때 자신 있는 분야와 자신 없는 분야 ⑧ 참여경험이 있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취업에 대한 태도	① 취업 희망분야 ② 취업 희망지역 ③ 취업 희망업체 선택시 중요 고려사항(1,2순위)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안	① 진로상담자 ② 소속 학과 교수의 학생상담 필요성 ③ 학과교수의 취업에 대한 관심정도 ④ 학교의 취업관련 서비스 문제점 ⑤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학교정책(1,2순위)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통한 각 문항의 응답분포도를 살펴보고, χ^2 검정을 통해 성별, 학년별, 성적별로 취업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진로의식

1) 대학진학 목적

대학진학의 목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좋은 직장에서의 취업”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135명, 46.4%), “다양한 지식습득(61명, 21.0%)”과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56명, 19.2%)” 순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대학진학 목적은 성별($\chi^2=13.842$, $p=.011$), 성적별($\chi^2=23.484$, $p=.000$) 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별 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2.974$, $p=.704$). 성별에 따른 대학진학 목적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좋은 직장에서의 취업”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남자는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그리고 여자는 “다양한 지식 습득”을 대학진학 목적으로 높게 응답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 대학진학 목적을 살펴본 결과 3학년과 4학년 모두 “좋은 직장에서의 취업”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지식 습득”,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적별 대학진학 목적을 살펴보면 3.0미만의 취득자의 경우 “좋은 직장에서의 취업”,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부모님의 권유”라고 응답한 반면 3.0이상 취득자의 경우 “좋은 직장에서의 취업”, “다양한 지식 습득”,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순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성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학과 선택 동기

학과 선택 동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22명(41.9%)이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라고 응답하였고,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74명, 25.4%)”, “성적에 맞추어(64명, 22.0%)” 순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이러한 순위는 성별($\chi^2=2.754$, $p=.600$), 학년별($\chi^2=3.193$, $p=.526$), 성적별($\chi^2=9.327$, $p=.053$)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3-2> 대학 진학의 목적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	56 (19.2)	35 (23.8)	21 (14.6)	33 (21.6)	23 (16.7)	13 (18.6)	43 (19.5)
좋은 직장에서의 취업	135 (46.4)	54 (36.7)	81 (56.3)	66 (43.1)	69 (50.0)	31 (44.3)	104 (47.1)
다양한 지식 습득	61 (21.0)	31 (21.1)	30 (2.83)	35 (22.9)	26 (18.8)	7 (10.0)	54 (24.4)
부모님의 권유	17 (5.8)	12 (8.2)	5 (3.5)	9 (5.9)	8 (5.8)	11 (15.7)	6 (2.7)
폭넓은 인간관계	14 (4.8)	10 (6.8)	4 (2.8)	7 (4.6)	7 (5.1)	6 (8.6)	8 (3.6)
기타	8 (2.7)	5 (3.4)	3 (2.1)	3 (2.0)	5 (3.6)	2 (2.9)	6 (2.7)
		$\chi^2=14.841, p=.011$		$\chi^2=2.974, p=.704$		$\chi^2=23.484, p=.000$	

<표 3-3> 학과 선택 동기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74 (25.4)	33 (22.4)	41 (28.5)	43 (28.1)	31 (22.5)	17 (24.3)	57 (25.8)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122 (41.9)	66 (44.9)	56 (38.9)	60 (39.2)	62 (44.9)	24 (34.3)	98 (44.3)
성적에 맞추어	64 (22.0)	30 (2.43)	34 (23.6)	33 (21.6)	31 (22.5)	15 (21.4)	49 (22.2)
부모님의 권유	16 (5.5)	9 (6.1)	7 (4.9)	7 (4.6)	9 (6.5)	8 (11.4)	8 (3.6)
기타	15 (5.2)	9 (6.1)	6 (4.2)	10 (6.5)	5 (3.6)	6 (8.6)	9 (4.1)
		$\chi^2=2.754, p=.600$		$\chi^2=3.193, p=.526$		$\chi^2=9.327, p=.053$	

3) 학과 만족도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에서는 상당수 학생들이 보통 이상의 긍정적 만족도를 보였다(<표 3-4> 참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chi^2=10.414$, $p=.064$), 학년별($\chi^2=4.933$, $p=.424$) 분석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적별 학과 만족도에서는 3.0미만 취득자의 경우 보통 이하의 불만족한 부정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3.0 이상 취득자의 경우 상당수가 보통 이상의 긍정적 만족도를 나타냄으로써 성적에 따른 학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7.715$, $p=.000$).

<표 3-4> 학과 만족도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매우 불만족	13 (4.5)	7 (4.8)	6 (4.2)	9 (5.9)	4 (2.9)	8 (8.6)	7 (3.2)
불만족	38 (13.1)	12 (8.2)	26 (18.1)	24 (15.7)	14 (10.1)	20 (28.6)	18 (8.1)
보통	122 (41.9)	59 (40.1)	63 (43.8)	60 (39.2)	62 (44.9)	17 (24.3)	105 (47.5)
만족	85 (29.2)	47 (32.0)	38 (26.4)	44 (28.8)	41 (29.7)	20 (28.6)	65 (29.4)
매우 만족	33 (11.3)	22 (15.0)	11 (7.6)	16 (10.5)	17 (11.6)	7 (10.0)	26 (11.8)
		$\chi^2=10.414$, $p=.064$		$\chi^2=4.933$, $p=.424$		$\chi^2=27.715$, $p=.000$	

4) 현재 가장 큰 고민

현재 가장 큰 고민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취업문제” 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70.7% (205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공공부 및 학점(32명, 11.0%)”, “경제문제(24명, 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5> 참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진로문제에 대한 고민을 본 연구의 응답자들도 동일하게 가장 큰 고민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현재 가장 큰 고민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이성관계	9 (3.1)	7 (4.8)	2 (1.4)	4 (2.6)	5 (3.6)	2 (2.9)	7 (3.20)
취업문제	205 (70.7)	101 (68.7)	104 (72.7)	102 (66.7)	103 (75.2)	37 (52.9)	168 (76.4)
전공공부 및 학점	32 (11.0)	18 (12.2)	14 (9.8)	21 (13.7)	11 (8.0)	10 (14.3)	22 (10.0)
대인관계	12 (4.1)	6 (4.1)	6 (4.2)	8 (5.2)	4 (2.9)	8 (11.4)	4 (1.8)
경제문제	24 (8.3)	13 (8.8)	11 (7.7)	14 (9.2)	10 (7.3)	10 (14.3)	14 (6.4)
가정문제	2 (0.7)	0 (0.0)	2 (1.4)	0 (0.0)	2 (1.5)	2 (2.9)	0 (0.0)
기타	6 (2.1)	2 (1.4)	4 (2.8)	4 (2.6)	2 (1.5)	1 (1.4)	5 (2.3)
		$\chi^2=6.101,$ p=.412		$\chi^2=7.046,$ p=.317		$\chi^2=27.401,$ p=.00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chi^2=6.101, p=.412$), 학년별($\chi^2=7.046, p=.317$) 고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적별 고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7.401, p=.000$). 즉 3.0미만의 성적 취득자의 경우 “취업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문제”와 “전공공부 및 학점”이 동일한 응답 순으로 나타난 반면 3.0 이상 성적 취득자의 경우 “취업문제(168명, 57.9%)”, “전공공부 및 학점(22명, 7.6%)”, “경제문제(14명, 4.8%)” 순으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나 성적별 고민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취업준비 현황

1) 최적의 취업준비 시기

<표 3-6>은 최적의 취업준비 시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성별, 학년별, 성적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취업준비는 3학년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93명), 2학년(51명), 1학년 (1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 최적의 취업준비 시기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1학년	13 (4.5)	8 (5.4)	5 (3.5)	6 (3.9)	7 (5.1)	3 (4.3)	10 (4.5)
2학년	51 (17.5)	27 (18.4)	24 (16.7)	29 (19.0)	22 (15.9)	19 (27.1)	32 (14.5)
3학년	134 (46.0)	65 (44.2)	69 (47.9)	69 (45.1)	65 (47.1)	26 (37.1)	108 (48.9)
4학년	93 (31.9)	47 (32.0)	46 (31.9)	49 (32.0)	44 (31.9)	22 (31.4)	71 (32.2)
		$\chi^2=1.957,$ $p=.744$		$\chi^2=1.780,$ $p=.776$		$\chi^2=6.776,$ $p=.148$	

2) 취업 준비 상태

취업 준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chi^2=2.935, p=.710$), 학년별($\chi^2=19.288, p=.002$), 성적별($\chi^2=16.207, p=.006$) 취업준비 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7> 참조).

우선 학년별 분석에서 3학년의 경우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와 “정보를 수집 중이다” 라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4학년의 경우 “대략적 혹은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였다.” 라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3학년 보다는 4학년의 취업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적별 취업상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적에 상관없이 모두 취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미만 보다 3.0이상의 성적 취득자가 취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략적인 취업방향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본인의 취업준비 상태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아직 관심이 없다	12 (4.1)	8 (5.4)	4 (2.8)	8 (5.2)	4 (2.9)	8 (11.4)	4 (1.8)
관심만 가지고 있다	87 (29.9)	43 (29.3)	44 (3.61)	55 (35.9)	32 (23.2)	20 (28.6)	67 (30.3)
정보를 수집 중이다	74 (25.4)	36 (24.5)	38 (26.4)	45 (29.4)	29 (21.0)	17 (24.3)	57 (25.8)
대략 방향을 결정했다	61 (21.1)	28 (19.0)	33 (22.9)	27 (17.6)	34 (24.6)	10 (14.3)	51 (23.1)
구체적 방향을 결정했다	51 (17.5)	28 (19.0)	23 (16.0)	17 (11.1)	34 (24.6)	12 (17.1)	39 (17.6)
기타	6 (2.1)	4 (2.7)	2 (1.4)	1 (0.7)	5 (3.6)	3 (4.3)	3 (1.4)
		$\chi^2=2.935,$ $p=.710$		$\chi^2=19.288,$ $p=.002$		$\chi^2=16.207,$ $p=.006$	

3) 취업을 위해 중점을 두는 공부

취업을 위해 중점을 두는 공부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관련 자격증 취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93명, 32.0%), 그 다음으로는 “외국어 능력 배양(72명, 24.7%)”, “전공공부와 학점관리(59명, 20.3%) 순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이러한 순위는 성별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chi^2=8.404, p=.210$).

학년별 분석결과에서는 3학년과 4학년 모두 “관련 자격증 취득”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더불어 3학년은 “전공공부와 학점관리” 그리고 “외국어 능력 배양” 순으로, 4학년은 “외국어 능력 배양”, “전공공부와 학점관리” 순으로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5.672, p=.016$).

성적별 분석결과에서는 3.0미만의 경우 “관련 자격증 취득”이 가장 많았고, “전공공부와 학점관리”, “아직은 없다”는 순으로 나타났으며 3.0이상인 경우 “외국어 능력 배양”을 가장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련 자격증 취득”과 “전공공부와 학점관리” 순으로 나타나 성적별 취업 준비 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3.991, p=.030$).

<표 3-8> 취업을 위해 중점을 두는 공부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전공공부와 학점관리	59 (20.3)	28 (19.0)	31 (21.5)	42 (27.5)	17 (12.3)	15 (21.4)	44 (19.9)
관련 자격증 취득	93 (32.0)	52 (35.4)	41 (28.5)	45 (29.4)	48 (34.8)	30 (42.9)	63 (28.5)
외국어 능력 배양	72 (24.7)	28 (19.0)	44 (30.6)	37 (24.2)	35 (25.4)	7 (10.0)	65 (29.4)
직장체험 및 연수	20 (6.9)	14 (9.5)	6 (4.2)	8 (5.2)	12 (8.7)	6 (8.6)	14 (6.3)
취업시험 준비	23 (7.9)	12 (8.2)	11 (7.6)	8 (5.2)	15 (10.9)	4 (5.7)	19 (8.6)
아직은 없다	24 (8.3)	13 (8.9)	11 (7.5)	13 (8.5)	11 (7.9)	8 (11.4)	16 (7.2)
		$\chi^2=8.404$, p=.210		$\chi^2=15.672$, p=.016		$\chi^2=13.991$, p=.030	

4) 취업준비 애로사항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57명, 19.6%), 그 다음으로는 “내 적성과 희망을 파악하지 못했다(54명, 18.6%)”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16.5%)”이라는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9> 참조).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chi^2=6.153$, $p=.725$), 성적별($\chi^2=11.063$, $p=.271$) 취업준비상의 애로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년별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5.956$, $p=.002$). 즉 3학년의 경우 “내 적성과 희망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순으로 애로사항을 밝히고 있는 반면 4학년의 경우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힘들다”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전공과 희망직업의 불일치”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9> 취업준비 애로사항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48 (16.5)	22 (15.0)	26 (18.1)	31 (2.37)	17 (12.3)	10 (14.3)	38 (17.2)
전공과 희망직업의 불일치	27 (9.3)	11 (7.5)	16 (11.1)	12 (7.8)	15 (10.9)	5 (7.1)	22 (10.0)
내 희망과 부모님 기대 불일치	21 (7.2)	13 (8.8)	8 (5.6)	10 (6.5)	11 (8.0)	9 (12.9)	12 (5.4)
내 적성과 희망을 파악 못함	54 (18.6)	28 (19.0)	26 (18.1)	35 (22.9)	19 (13.8)	12 (17.1)	42 (19.0)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35 (12.0)	19 (12.9)	16 (11.1)	22 (14.4)	13 (9.4)	12 (17.1)	23 (10.4)
취업관련 인터뷰 연습기회 부족	11 (3.8)	8 (5.4)	3 (2.1)	6 (3.9)	5 (3.6)	4 (5.7)	7 (3.2)
내가 원하는 직장이 거주지와 멀다	11 (3.8)	5 (3.4)	6 (4.2)	4 (2.6)	7 (5.1)	3 (4.3)	8 (3.6)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어렵다	57 (19.6)	26 (17.7)	31 (21.5)	16 (10.5)	41 (29.7)	8 (11.4)	49 (22.2)
취업관련 학교 지원이 너무 부족함	15 (5.2)	9 (6.1)	6 (4.2)	11 (7.2)	4 (2.9)	4 (5.7)	11 (5.0)
기타	12 (4.1)	6 (4.1)	6 (4.2)	6 (3.9)	6 (4.3)	3 (4.3)	9 (4.1)
		$\chi^2=6.153,$ p=.725		$\chi^2=25.956,$ p=.002		$\chi^2=11.063,$ p=.271	

5) 취업정보 얻는 경로

취업정보를 얻는 경로의 분석결과에서는 “인터넷 등 취업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133명, 45.7%), “친구나 선배(62명, 21.3%)”, “학과교수 및 학과 사무실(23명, 7.9%)”과 “TV/신문/취업전문 잡지(23명, 7.9%)”와 같은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성별에 따른 취업정보를 얻는 경로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인터넷과 같은 취업포털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더불어 남자는 “친구 및 선배”, “TV/신문/취업전문 잡지” 순으로 그리고 여자는 “친구와 선배”, “학과 교수 및 학과 사무실”을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9.281, p=.013$).

학년별 취업정보를 얻는 경로는 살펴보면 3학년과 4학년 모두 취업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더불어 3학년의 경우 “친구 및 선배” 그리고 “학과 교수 및 학과 사무실” 순으로 그리고 4학년의 경우는 “친구 및 선배” 그리고 “학교 취업지원센터(부서)”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2.797, p=.004$).

성적별 분석결과에서는 모두 인터넷(취업포털사이트)을 통한 취업정보 획득이 가장 많았고 이와 더불어 3.0미만의 경우 “친구 및 선배”, “TV/신문/취업전문 잡지”, “가족 및 친지” 순으로 그리고 3.0이상의 경우 “친구 및 선배”, “학과교수 및 학과 사무실”을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2.580, p=.004$).

<표 3-10> 취업정보 얻는 경로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학과 교수/학과 사무실	23 (7.9)	11 (7.5)	12 (8.3)	19 (12.4)	4 (2.9)	5 (7.1)	18 (8.1)
친구 및 선배	62 (21.3)	38 (25.9)	24 (16.7)	35 (22.9)	27 (19.6)	16 (22.9)	46 (20.8)
인터넷(취업포털사이트)	133 (45.7)	50 (34.0)	83 (57.6)	68 (43.1)	67 (48.6)	19 (27.1)	114 (51.6)
TV/신문, 취업전문 잡지	23 (7.9)	15 (10.2)	8 (5.6)	12 (7.8)	11 (8.0)	10 (14.3)	13 (5.9)
가족 및 친지	17 (5.8)	12 (8.2)	5 (3.5)	12 (7.8)	5 (3.6)	9 (12.9)	8 (3.6)
학교 취업지원센터(부서)	14 (4.8)	8 (5.4)	6 (4.2)	2 (1.3)	12 (8.7)	6 (8.6)	8 (3.6)
고용지원센터(노동부)	3 (1.0)	2 (1.4)	1 (0.7)	2 (1.3)	1 (0.7)	1 (1.4)	2 (0.9)
기업체 설명회	9 (3.10)	6 (4.1)	3 (2.1)	3 (2.0)	6 (4.3)	2 (2.9)	7 (3.2)
기타	7 (2.4)	5 (3.4)	2 (1.4)	2 (1.3)	5 (3.6)	2 (2.9)	5 (2.3)
		$\chi^2=19.281, p=.013$		$\chi^2=22.797, p=.004$		$\chi^2=22.580, p=.004$	

6) 취득 자격증 수

<표 3-11>은 취득 자격증의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χ^2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성별($\chi^2=5.698$, $p=.223$), 성적별($\chi^2=2.989$, $p=.560$) 취득 자격증의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년별 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2=20.740$, $p=.000$). 즉, 3학년의 경우 자격증이 “없다”와 “1개”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4학년의 경우 자격증이 “2개”와 “1개” 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아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준비를 위한 취득 자격증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1> 취득 자격증 수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없음	79 (27.1)	41 (27.9)	38 (26.4)	56 (36.6)	23 (16.7)	17 (24.3)	62 (28.1)
1개	63 (21.6)	35 (23.8)	28 (19.4)	37 (24.2)	26 (18.8)	14 (20.0)	49 (22.2)
2개	89 (30.6)	41 (27.9)	48 (33.3)	35 (22.9)	54 (39.1)	27 (38.6)	62 (28.1)
3개	32 (11.0)	12 (8.2)	20 (13.9)	13 (8.5)	19 (13.8)	7 (10.0)	25 (11.3)
4개 이상	28 (9.6)	18 (12.2)	10 (6.9)	12 (7.8)	16 (11.6)	5 (7.1)	23 (10.4)
		$\chi^2=5.698$, $p=.223$		$\chi^2=20.740$, $p=.000$		$\chi^2=2.989$, $p=.560$	

7) 취업할 때 가장 자신 있는 분야와 자신 없는 분야

취업할 때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면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71명, 24.4%), 그 다음으로 “학교성적(60명, 20.6%)”, “영어실력(40명, 13.7%)” 순으로 나타났다(<표 3-12> 참조).

성별에 따른 취업할 때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는 “면접”, “상식 시험”, “PC 활용능력” 순으로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학교성적”, “면접”, “영어실력” 순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7.904$, $p=.003$). 성적별 분석에서는 3.0미만의

경우 “면접”, “상식시험”, “PC 활용능력” 순으로 그리고 3.0이상의 경우 “학교성적”, “면접”, “PC 활용능력”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7.777$, $p=.003$). 그러나 학년별로는 3학년과 4학년 모두 “면접”, “학교성적”, “상식시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chi^2=1.847$, $p=.870$).

한편 취업할 때 가장 자신 없는 분야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영어실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161명, 55.7%), “면접(39명, 13.5%)”, “상식시험(35명, 12.1%)” 순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조).

성별에 따른 취업할 때 가장 자신 없는 분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영어실력”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와 더불어 남자는 “학교성적”과 “상식시험”을 그리고 여자는 “면접”과 “상식시험”을 꼽아 성별에 따른 자신 없는 분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8.171$, $p=.003$). 학년별 자신 없는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3학년과 4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10.135$, $p=.071$). 성적별 분석결과에서는 3.0미만과 3.0이상의 성적 취득자 모두 “영어실력”이 가장 자신 없는 분야라고 응답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3.0미만의 경우 “학교성적”과 “상식시험”을 그리고 3.0이상의 경우 “면접”과 “상식시험”을 자신 없는 분야로 꼽아 성적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7.031$, $p=.004$).

<표 3-12> 취업할 때 가장 자신 있는 분야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학교 성적	60 (20.6)	19 (12.9)	41 (28.5)	32 (20.9)	28 (20.3)	4 (5.7)	56 (25.3)
영어 실력	40 (13.7)	16 (10.9)	24 (16.7)	18 (11.8)	22 (15.9)	10 (14.3)	30 (13.6)
면접	71 (24.4)	45 (30.6)	26 (18.1)	41 (26.8)	30 (21.7)	21 (30.0)	50 (22.6)
전공 시험	26 (8.9)	17 (11.6)	9 (6.3)	14 (9.2)	12 (8.7)	4 (5.7)	22 (10.0)
상식 시험	50 (17.2)	28 (19.0)	22 (15.3)	25 (16.3)	25 (18.1)	19 (27.1)	31 (14.0)
PC 활용능력	44 (15.1)	22 (15.0)	22 (15.3)	23 (15.0)	21 (15.2)	12 (17.1)	32 (14.5)
		$\chi^2=17.904$, $p=.003$		$\chi^2=1.847$, $p=.870$		$\chi^2=17.777$, $p=.003$	

<표 3-13> 취업할 때 가장 자신 없는 분야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학교 성적	23 (8.0)	19 (12.9)	4 (2.8)	11 (7.2)	12 (8.8)	13 (19.1)	10 (4.5)
영어 실력	161 (55.7)	85 (57.8)	76 (53.5)	95 (62.1)	66 (48.5)	34 (50.0)	127 (57.5)
면접	39 (13.5)	11 (7.5)	28 (19.7)	21 (13.7)	18 (13.2)	5 (7.4)	34 (15.4)
전공 시험	18 (6.2)	10 (6.8)	8 (5.6)	10 (6.5)	8 (5.9)	4 (5.9)	14 (6.3)
상식 시험	35 (12.1)	16 (10.9)	19 (13.4)	12 (7.8)	23 (16.9)	9 (13.2)	26 (11.8)
PC 활용능력	13 (4.5)	6 (4.1)	7 (4.9)	4 (2.6)	9 (6.6)	3 (4.4)	10 (4.5)
		$\chi^2=18.171, p=.003$		$\chi^2=10.135, p=.071$		$\chi^2=17.031, p=.004$	

8) 취업 관련 참여 프로그램

취업 관련 활동 중 참여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14 참조>), “취업특강 및 설명회”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참여해 본 적 없다”와 “취업 관련 교양강좌를 수강” 했다는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는 성별, 학년별 참여 프로그램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chi^2=5.842, p=.884$).

성적별 분석결과에서는 3.0미만과 3.0이상의 성적 취득자 모두 “취업특강·설명회”와 “참여해 본 적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와 더불어 3.0미만자의 경우 “취업 캠프의 참여”를 그리고 3.0이상자의 경우 “취업 관련 교양강좌 수강”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성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chi^2=37.362, p=.000$).

<표 3-14> 취업 관련 참여 프로그램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취업특강·설명회	116 (39.9)	56 (38.1)	60 (41.7)	54 (35.3)	62 (44.9)	16 (22.9)	100 (45.2)
취업관련 교양강좌 수강	31 (10.7)	17 (11.6)	14 (9.7)	14 (9.2)	17 (12.3)	7 (10.0)	24 (10.9)
복수전공(부전공) 선택	17 (5.8)	8 (5.4)	9 (6.3)	10 (6.5)	7 (5.1)	2 (2.9)	15 (6.8)
어학 강좌 수강	23 (7.9)	13 (8.8)	10 (6.9)	13 (8.5)	10 (7.2)	5 (7.1)	18 (8.1)
취업캠프 참여	15 (5.2)	8 (5.4)	7 (4.9)	11 (7.2)	4 (2.9)	8 (11.4)	7 (3.2)
인턴십 참여	7 (2.4)	5 (3.4)	2 (1.4)	4 (2.6)	3 (2.2)	5 (7.1)	2 (0.9)
자격증 취득 강좌	13 (4.7)	8 (5.4)	5 (3.5)	8 (5.2)	5 (3.6)	2 (2.9)	11 (5.0)
Job Festival 등 취업행사	11 (3.8)	6 (4.1)	5 (3.5)	6 (3.9)	5 (3.6)	7 (10.0)	4 (1.8)
전공연수 프로그램 참여	4 (1.4)	1 (0.7)	3 (2.1)	2 (1.3)	2 (1.4)	2 (2.9)	2 (0.9)
자기계발 프로그램	6 (2.1)	2 (1.4)	4 (2.8)	4 (2.6)	2 (1.4)	1 (1.4)	5 (2.3)
참여해 본 적 없음	47 (16.2)	22 (15.0)	25 (17.4)	27 (17.6)	20 (14.5)	15 (21.4)	32 (14.5)
기타	1 (0.3)	1 (0.7)	0 (0.0)	0 (0.0)	1 (0.7)	0 (0.0)	1 (0.5)
		$\chi^2=5.842,$ p=.884		$\chi^2=7.913,$ p=.721		$\chi^2=37.362, p=.000$	

3. 취업에 대한 태도

1) 취업 희망분야

취업 희망 분야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84명, 28.9%),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57명, 19.6%)”, “정부기관·공기업(43명, 14.8%)”,

“금융기관(32명, 11.0%) 순으로 나타났다(<표 3-15> 참조).

학년별 희망 취업분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chi^2=13.147, p=.107$), 성별, 성적별 분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희망 취업분야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공기업”, “금융기관” 순으로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기관·공기업”, “외국계기업” 순으로 높게 응답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6.649, p=.001$). 성적별 분석에서는 3.0미만과 3.0이상 모두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았으나 3.0미만자의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고 3.0이상자의 경우 “정부기관·공기업”과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성적별 취업 희망 분야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3.106, p=.003$).

<표 3-15> 취업 희망분야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정부기관·공기업	43 (14.8)	20 (13.6)	23 (16.0)	16 (10.5)	27 (19.6)	2 (2.9)	41 (18.6)
대기업	84 (28.9)	37 (25.2)	47 (32.6)	45 (29.4)	39 (28.3)	24 (34.3)	60 (27.1)
중소기업	57 (19.6)	31 (21.1)	26 (18.1)	29 (19.0)	28 (20.3)	18 (25.7)	39 (17.6)
외국계기업	24 (8.2)	9 (6.1)	15 (10.4)	11 (7.2)	13 (9.4)	8 (11.4)	16 (7.2)
금융기관	32 (11.0)	18 (12.2)	14 (9.7)	20 (13.1)	12 (8.7)	6 (8.6)	26 (11.8)
전문직(공인회계사 등)	14 (4.8)	5 (3.4)	9 (6.3)	11 (7.2)	3 (2.2)	2 (2.9)	12 (5.4)
자영업(창업)	23 (7.9)	21 (14.3)	2 (1.4)	14 (9.2)	9 (6.5)	10 (14.3)	13 (5.9)
진학/유학	9 (3.1)	6 (4.1)	3 (2.1)	6 (3.9)	3 (2.2)	0 (0.0)	9 (4.1)
기타	5 (1.7)	0 (0.0)	5 (3.5)	1 (0.7)	4 (2.9)	0 (0.0)	5 (2.3)
		$\chi^2=26.649, p=.001$		$\chi^2=13.147, p=.107$		$\chi^2=23.106, p=.003$	

2) 취업 희망지역

취업 희망 지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이 11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39.9%)

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천·경기지역(71명, 24.2%)”과 “대전·충남지역(59명, 20.3%)”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16> 참조).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chi^2=2.387, p=.967$), 학년별($\chi^2=6.444, p=.598$) 취업 희망 지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적별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0.821, p=.000$). 즉 성적이 3.0 미만인 경우 “인천·경기지역”에로의 취업희망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과 “대전·충남지역”을 그리고 성적이 3.0이상인 경우 “서울”, “인천·경기지역”, “대전·충남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성적별 취업 희망 지역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16> 취업 희망지역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서울	116 (39.9)	60 (40.8)	56 (38.9)	54 (35.3)	62 (44.9)	17 (24.3)	99 (44.8)
인천·경기지역	71 (24.4)	35 (23.8)	36 (25.0)	42 (27.5)	29 (21.0)	25 (35.7)	46 (20.8)
강원도	5 (1.7)	3 (2.0)	2 (1.4)	2 (1.3)	3 (2.2)	1 (1.4)	4 (1.8)
대전·충남지역	59 (20.3)	30 (20.4)	29 (20.1)	31 (20.3)	28 (20.3)	13 (18.6)	46 (20.8)
충북지역	10 (3.4)	6 (4.1)	4 (2.8)	7 (4.6)	3 (2.2)	7 (10.0)	3 (1.4)
전북지역	2 (0.7)	1 (0.7)	1 (0.7)	1 (0.7)	1 (0.7)	2 (2.9)	0 (0.0)
대구·경북지역	3 (1.0)	2 (1.4)	1 (0.7)	2 (1.3)	1 (0.7)	1 (1.4)	2 (0.9)
광주·전남지역	6 (2.1)	3 (2.0)	3 (2.1)	2 (1.3)	4 (2.9)	2 (2.9)	4 (1.8)
경남지역	19 (6.5)	7 (4.8)	12 (8.3)	12 (7.8)	7 (5.1)	2 (2.9)	17 (7.7)
제주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해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chi^2=2.387,$ p=.967		$\chi^2=6.444,$ p=.598		$\chi^2=30.821, p=.000$	

3) 취업 희망업체 선택시 중요 요인(1순위, 2순위)

취업 희망 업체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 요인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의 적성 및 직무 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112명, 38.5%), 그 다음으로는 “연봉수준(85명, 29.2%)”과 “직장의 안정성(26명, 8.9%)” 순으로 나타났다(<표 3-17> 참조). 성별, 학년별, 성적별 취업 희망업체 선택시 중요요인(1순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17> 취업 희망업체 선택시 중요 요인(1순위)

(n=291,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연봉수준	85 (29.2)	50 (34.0)	35 (24.3)	43 (28.1)	42 (30.4)	20 (28.6)	65 (29.4)
적성 및 직무적합성	112 (38.5)	49 (33.3)	63 (43.8)	57 (37.3)	55 (39.9)	20 (28.6)	92 (41.6)
회사 규모 및 인지도	15 (5.2)	4 (2.7)	11 (7.6)	5 (3.3)	10 (7.2)	6 (8.6)	9 (4.1)
직장의 안정성	26 (8.9)	13 (8.8)	13 (9.0)	17 (11.1)	9 (6.5)	5 (7.1)	21 (9.5)
다양한 복지혜택	20 (6.9)	11 (7.5)	9 (6.3)	13 (8.5)	7 (5.1)	8 (11.4)	12 (5.4)
회사 발전 전망	7 (2.4)	3 (2.0)	4 (2.8)	1 (0.7)	6 (4.3)	2 (2.9)	5 (2.3)
근무시간/휴일등 근로조건	11 (3.8)	8 (5.4)	3 (2.1)	7 (4.6)	4 (2.9)	4 (5.7)	7 (3.2)
자기개발 및 성장 가능성	11 (3.8)	8 (5.4)	3 (2.1)	9 (5.9)	2 (1.4)	2 (2.9)	9 (4.1)
기타	4 (1.4)	1 (0.7)	3 (2.1)	1 (0.7)	3 (2.2)	3 (4.3)	1 (0.5)
		$\chi^2=13.523, p=.095$		$\chi^2=15.087, p=.057$		$\chi^2=14.451, p=.071$	

그리고 취업 희망 업체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2순위 요인에서는 “연봉수준(79명, 27.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장의 안정성(41명, 14.5%)”과 “본인의 적성 및 직무 적합성(35명, 12.4%)” 순으로 나타났다(<표 3-19> 참조).

취업희망업체 선택 시 중요요인(2순위) 분석결과에서는 성별($\chi^2=7.344, p=.500$), 학년별 (χ

$\chi^2=14.011$, $p=.081$)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적별 분석결과에서는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chi^2=18.5177$, $p=.018$). 즉 “연봉수준”을 취업 희망업체 선택 시 중요 요인(2순위)으로 꼽는다는 것은 성적 3.0미만이나 3.0이상 취득자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3.0미만의 경우 “본인의 적성 및 직무 적합성”과 “자기 계발 및 성장 가능성” 요인을 그리고 3.0이상의 경우 “직장의 안정성”과 “다양한 복지혜택” 등을 그 다음 중요 고려요인으로 응답함으로써 성적별 취업 희망업체 선택 시(2순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8.517$, $p=.018$).

<표 3-18> 취업 희망업체 선택시 중요 요인(2순위)

(n=283,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연봉수준	79 (27.9)	36 (25.5)	43 (30.3)	50 (33.6)	29 (21.6)	17 (25.4)	62 (28.7)
적성 및 직무적합성	35 (12.4)	21 (14.9)	14 (9.9)	15 (10.1)	20 (14.9)	13 (19.4)	22 (10.2)
회사 규모 및 인지도	16 (5.7)	10 (7.1)	6 (4.2)	8 (5.4)	8 (6.0)	4 (6.0)	12 (5.6)
직장의 안정성	41 (14.5)	20 (14.2)	21 (14.8)	22 (14.8)	19 (14.2)	7 (10.4)	34 (15.7)
다양한 복지혜택	34 (12.0)	14 (9.9)	20 (14.1)	16 (10.7)	18 (13.4)	6 (9.0)	28 (13.0)
회사 발전 전망	26 (9.2)	12 (8.5)	14 (9.9)	12 (8.1)	14 (10.4)	5 (7.5)	21 (9.7)
근무시간/휴일등 근로조건	21 (7.4)	9 (6.4)	12 (8.5)	7 (4.7)	14 (10.4)	2 (3.0)	19 (8.8)
자기계발 및 성장 가능성	26 (9.2)	17 (12.1)	9 (6.3)	18 (12.1)	8 (6.0)	9 (13.4)	17 (7.9)
기타	5 (1.8)	2 (1.4)	3 (2.1)	1 (0.7)	4 (3.0)	4 (6.0)	1 (0.5)
		$\chi^2=7.344$, $p=.500$		$\chi^2=14.011$, $p=.081$		$\chi^2=18.517$, $p=.018$	

4.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진로상담 대상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상담자를 알아보기 위해 χ^2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친구 및 선배”가 117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40.2%)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 및 친척(53명, 18.2%)”, “자신이 알아서(52명, 17.9%)”, “학과 교수(28명, 9.6%)” 순으로 나타났다(<표 3-19> 참조). 이러한 순위는 성별, 학년별 분석에서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적별 분석결과에서는 성적에 무관하게 진로 상담을 주로 “친구 및 선배”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성적이 3.0미만자인 경우 “가족 및 친척”, “자신이 알아서”, “취업 박람회 관계자” 순으로 그리고 성적이 3.0이상자의 경우 “자신이 알아서”, “가족 및 친척”, “학과 교수” 순으로 상담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별 진로상담 대상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5.311$, $p=.001$).

<표 3-19> 진로상담 대상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친구 및 선배	117 (40.2)	59 (40.1)	58 (40.3)	63 (41.2)	54 (39.1)	24 (34.3)	93 (42.1)
가족, 친척	53 (18.2)	31 (21.1)	22 (15.3)	28 (18.3)	25 (18.1)	21 (30.0)	32 (14.5)
학과 교수	28 (9.6)	13 (8.8)	15 (10.4)	15 (9.8)	13 (9.4)	2 (2.9)	26 (11.8)
교내 취업담당자	21 (7.2)	12 (8.2)	9 (6.3)	12 (7.8)	9 (6.5)	5 (7.1)	16 (7.2)
취업 박람회 관계자	11 (3.8)	5 (3.4)	6 (4.2)	4 (2.6)	7 (5.1)	7 (10.0)	4 (1.8)
취업컨설팅업체 상담사	5 (1.7)	1 (0.7)	4 (2.8)	1 (0.7)	4 (2.9)	1 (1.4)	4 (1.8)
자신이 알아서	52 (17.9)	24 (16.3)	28 (19.4)	28 (18.3)	24 (17.4)	8 (11.4)	44 (19.9)
기타	4 (1.4)	2 (1.4)	2 (1.4)	2 (1.3)	2 (1.4)	2 (2.9)	2 (0.9)
		$\chi^2=4.276$, $p=.747$		$\chi^2=3.596$, $p=.825$		$\chi^2=25.311$, $p=.001$	

2) 학과교수의 학생진로 상담의 필요성

학과 교수의 학생진로 상담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표 3-20>의 분석결과에서는 성, 학년, 성적에 무관하게 응답자 모두는 학과 교수와의 취업 관련 상담이 “매우 필요하다(106명, 36.4%)”는 의견과 “비교적 필요하다(83명, 28.5%)”는 의견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3) 학과 교수의 취업에 대한 관심정도

학과 교수의 취업에 대한 관심정도에 알아보기 위한 응답 결과에서는(<표 3-21> 참조), “보통”의 관심을 가진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긴 하였으나 “관심 없는 편”이라는 응답과 “전혀 관심 없다”는 응답도 상당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과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 및 적극적인 지도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학년별, 성적별 χ^2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0> 학과교수의 학생진로 상담의 필요성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전혀 불필요	10 (3.4)	8 (5.4)	2 (1.4)	5 (3.3)	5 (3.6)	4 (5.7)	6 (2.7)
비교적 불필요	31 (10.7)	11 (7.5)	20 (13.9)	17 (11.1)	14 (10.1)	10 (14.3)	21 (9.5)
보통	61 (21.0)	31 (21.1)	30 (20.8)	34 (22.2)	27 (19.6)	16 (22.9)	45 (20.4)
비교적 필요	83 (28.5)	46 (31.3)	37 (25.7)	42 (27.5)	41 (29.7)	19 (27.1)	64 (29.0)
매우 필요	106 (36.4)	51 (34.7)	55 (38.2)	55 (35.9)	51 (37.0)	21 (30.0)	85 (38.5)
		$\chi^2=7.326,$ p=.120		$\chi^2=.485,$ p=.975		$\chi^2=3.798,$ p=.434	

<표 3-21> 학과 교수의 취업에 대한 관심정도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전혀 관심 없음	24 (8.2)	11 (7.5)	13 (9.0)	13 (8.5)	11 (8.0)	4 (5.7)	20 (9.0)
관심없는 편	72 (24.7)	31 (21.1)	41 (28.5)	36 (23.5)	36 (26.1)	17 (24.3)	55 (24.9)
보통	101 (34.7)	49 (33.3)	52 (36.1)	51 (33.3)	50 (36.2)	22 (31.4)	79 (35.7)
비교적 관심 많은 편	60 (20.6)	34 (23.1)	26 (18.1)	35 (22.9)	25 (18.1)	18 (25.7)	42 (19.0)
매우 관심 많음	34 (11.6)	22 (15.0)	12 (8.3)	18 (11.8)	16 (11.6)	9 (12.9)	25 (11.4)
		$\chi^2=7.806, p=.253$		$\chi^2=3.204, p=.783$		$\chi^2=3.095, p=.797$	

4) 학교 당국의 취업관련 서비스의 문제점

학교 당국의 취업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표 3-22> 참조)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80명, 27.5%),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63명, 21.6%)”, “학생의 참여 의욕 부족(61명, 2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는 성별, 학년별, 성적별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22> 학교 당국의 취업관련 서비스의 문제점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미만	3.0이상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	80 (27.5)	38 (25.9)	42 (29.2)	43 (28.1)	37 (26.8)	18 (25.7)	62 (28.1)
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	63 (21.6)	33 (22.4)	30 (20.8)	35 (22.9)	28 (20.3)	21 (30.0)	42 (19.0)
서비스 전문 인력 부족	27 (9.3)	12 (8.2)	15 (10.4)	10 (6.5)	17 (12.3)	7 (10.0)	20 (9.0)
취업정보 시스템 미비	40 (13.7)	18 (12.2)	22 (15.3)	21 (13.7)	19 (13.8)	8 (11.4)	32 (14.5)
4학년 중심의 서비스 치중	17 (5.8)	6 (4.1)	11 (7.6)	11 (7.2)	6 (4.3)	3 (4.3)	14 (6.3)
학생의 참여 의욕 부족	61 (21.0)	38 (25.9)	23 (16.0)	32 (20.9)	29 (21.0)	13 (18.6)	48 (21.7)
기타	3 (1.0)	2 (1.4)	1 (0.7)	1 (0.7)	2 (1.4)	0 (0.0)	3 (1.4)
		$\chi^2=6.538,$ p=.366		$\chi^2=4.332,$ p=.632		$\chi^2=5.070,$ p=.535	

5)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학교 정책(1순위, 2순위)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학교 정책 1순위로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50명, 17.2%), 그 다음으로는 “취업박람회(47명, 16.2%)”,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턴십 과정(43명, 14.8%)”, “취업정보 확대(33명, 1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23> 참조).

한편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2순위 학교 정책으로는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턴십 과정”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41명, 14.7%) 그 다음으로는 “어학연수 지원(30명, 10.8%)”, “취업박람회(28명, 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24> 참조).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학교 정책의 1, 2순위는 성별, 학년별, 성적별로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3>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학교 정책(1순위)

(n=291,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 미만	3.0 이상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50 (17.2)	22 (15.0)	28 (19.4)	24 (15.7)	26 (18.8)	14 (20.0)	36 (16.3)
취업박람회	47 (16.2)	27 (18.4)	20 (13.9)	30 (19.6)	17 (12.3)	14 (20.0)	33 (14.9)
기업인재상을 반영한 교과과정개편	28 (9.6)	14 (9.5)	14 (9.7)	16 (10.5)	12 (8.7)	9 (12.9)	19 (8.6)
취업정보 확대	33 (11.3)	14 (9.5)	19 (13.2)	16 (10.5)	17 (12.3)	9 (12.9)	24 (10.9)
기업 설명회	15 (5.2)	11 (7.5)	4 (2.8)	6 (3.9)	9 (6.5)	5 (7.1)	10 (4.5)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턴십 과정	43 (14.8)	15 (10.2)	28 (19.4)	21 (13.7)	22 (15.9)	4 (5.7)	39 (17.6)
어학연수 지원	25 (8.6)	15 (10.2)	10 (6.9)	14 (9.2)	11 (8.0)	8 (11.4)	17 (7.7)
모의면접	5 (1.7)	5 (3.4)	0 (0.0)	2 (1.3)	3 (2.2)	1 (1.4)	4 (1.8)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16 (5.5)	9 (6.1)	7 (4.9)	11 (7.2)	5 (3.6)	1 (1.4)	15 (6.8)
취업 멘토링제 운영	16 (5.5)	8 (5.4)	8 (5.6)	7 (4.6)	9 (6.5)	1 (1.4)	15 (6.8)
취업전산망 확충	5 (1.7)	4 (2.7)	1 (0.7)	2 (1.3)	3 (2.2)	2 (2.9)	3 (1.4)
진로탐색 프로그램 확대	8 (2.7)	3 (2.0)	5 (3.5)	4 (2.6)	4 (2.9)	2 (2.9)	6 (2.7)
		$\chi^2=18.238,$ p=.076		$\chi^2=7.407,$ p=.765		$\chi^2=15.452,$ p=.163	

<표 3-24>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학교정책(2순위)

(n=279,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학년		성적	
		남	여	3학년	4학년	3.0 미만	3.0 이상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27 (9.7)	12 (8.6)	15 (10.8)	15 (10.2)	12 (9.1)	5 (7.7)	22 (10.3)
취업박람회	28 (10.0)	9 (6.4)	19 (13.7)	14 (9.5)	14 (10.6)	10 (15.4)	18 (8.4)
기업인재상을 반영한 교과과정개편	26 (9.3)	15 (10.7)	11 (7.9)	12 (8.2)	14 (10.6)	7 (10.8)	19 (8.9)
취업정보 확대	25 (9.0)	15 (10.7)	10 (7.2)	14 (9.5)	11 (8.3)	4 (6.2)	21 (9.8)
기업 설명회	16 (5.7)	7 (5.0)	9 (6.5)	8 (5.4)	8 (6.1)	2 (3.1)	14 (6.5)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턴십 과정	41 (14.7)	25 (17.9)	16 (11.5)	23 (15.6)	18 (13.6)	13 (20.0)	28 (13.1)
어학연수 지원	30 (10.8)	11 (7.9)	19 (13.7)	14 (9.5)	16 (12.1)	7 (10.8)	23 (10.7)
모의면접	16 (5.7)	7 (5.0)	9 (6.5)	9 (6.1)	7 (5.3)	2 (3.1)	14 (6.5)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11 (3.9)	7 (5.0)	4 (2.9)	9 (6.1)	2 (1.5)	4 (6.2)	7 (3.3)
취업 멘토링제 운영	25 (9.0)	11 (7.9)	14 (10.1)	13 (8.8)	12 (9.1)	4 (6.2)	21 (9.8)
취업전산망 확충	10 (3.6)	8 (5.7)	2 (1.4)	3 (2.0)	7 (5.3)	2 (3.1)	8 (3.7)
진로탐색 프로그램 확대	24 (8.6)	13 (9.3)	11 (7.9)	13 (8.8)	11 (8.3)	5 (7.7)	19 (8.9)
		$\chi^2=15.071,$ p=.179		$\chi^2=7.316,$ p=.773		$\chi^2=9.346,$ p=.590	

IV. 결론 및 제언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와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고학력 실업률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학생의 취업은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0개 4년제 대학의 경상계열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별, 학년별, 성적별 차이를 분석을 함으로써 대학의 취업지도 교육과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학생들이 3학년을 취업준비의 적정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바,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로나 취업에 대한 고민을 주로 1, 2학년 시기에 가장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나 취업준비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단계적 차원에서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흔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들은 주로 4학년 학생들이 그 중심이 되고 있으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대략적이거나 구체적인 취업방향을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심리적 갈등과 고민이 가장 많은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취업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계열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비하여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하는 취업준비 활동은 “관련 자격증의 취득”, “외국어 능력 배양”, “전공공부와 학점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의 학생들의 실제적 준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취업준비 지원프로그램의 확충이 요구된다.

i) 자격증 취득 - 청년 일자리 취업기회가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혹은 전공영역별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와 준비과정, 시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실제적인 교육이 학교당국이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다. 취업과 직결되는 유망한 자격증의 경우 2학년 이전에 이미 이에 대한 안내와 자세한 정보를 담은 유인물을 학과단위나 단과대학 단위로 만들어 배포하고, 도서관에 자격증 관련 도서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비치함은 물론 관련된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선배들의 명단과 소속, 연락처 등을 자료로 확보하여 다양한 특강과 자문,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멘토나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ii) 전공공부 - 연구결과에서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학교정책 1순위와 2순위로 “취업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산업현장과 연계한 인턴십 과정”을 꼽고 있는 바, 전공영역의 커리큘

럼을 현실성 있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장견학이나 실습기회가 포함된 진로교육과정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킨다거나, 각 학과마다 3학년 1학기 정도에 학과별 특성과 관련된 진로나 취업영역을 상세히 다루어주는 전공필수 과목을 신설하여 학과교수가 1-2주 정도의 강의를 맡고, 외부 인사나 선배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자신의 전공영역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취업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상당수 설문 응답자들이 취업준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던 “내 적성과 희망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응답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는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i) 외국어 능력배양 - 연구결과에서도 학생들이 취업할 때 가장 자신 없는 분야가 외국어(영어) 분야였듯이 학교당국이나 단과대학 차원에서 외국어 영역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나 강좌, 교내 자격시험 등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에서 제공되는 취업관련 서비스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정보센터(부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 다양한 취업정보의 확보, 각 기업체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및 각종 취업 관련 정보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ex., 단과대학 또는 도서관 출입구, 구내식당 등)에 디지털 취업정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취업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산업체로의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게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취업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신 취업정보 소식지의 발간이나 유망직업 안내책자의 발간, 경상계열 관련 취업처의 각종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의 발간, 각종 취업설명회나 인사담당자 특강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직업상담가 등의 전문 인력의 확충, 자료검색을 위한 컴퓨터 등의 시설확충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의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교수진의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계열 대학생들은 “학과 교수와의 진로상담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진로상담은 “친구나 선배” 혹은 “가족이나 친척”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과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정도는 “보통” 이하의 “관심 없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과 교수들의 적극적인 면담과 진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산업체 방문을 통한 양질의 취업처 발굴과 기취업자들에 대한 추수지도 등 실질적인 취업 관련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도 교육, 취업현황에 대한 설명회, 학생 취업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의 교육과 모임이 활성화될 필요성도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계열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학

년별, 성적별 취업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경직된 취업지원 서비스가 아닌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취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드러났다.

첫째, 조사대상 집단을 대전·충남지역으로 한정하였고, 설문조사에서 확보된 샘플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연구결과의 내용을 전국의 모든 경상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의식 실태로 확대 해석 및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샘플의 수를 확보하여 단과대학별 또는 전문대학과 4년제 정규대학간의 비교연구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상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의식이 성별, 학년별, 성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취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전공(학과)별 또는 학년별 취업의식 실태를 분석하여 전공 특성에 맞는 취업 차별화 전략 내지 학년별 발달단계에 따른 취업지도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길훈 (2003), “효율적인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논총 제9호,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531-553.
- 김충기 (2001),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 고경희 (2003), “진로탐색을 위한 집단상담”, 학생생활연구 제6권, 경인여자대학 학생생활연구소.
- 김경순·김두화 (2009), “2008학년도 진로의식 조사”, 학생생활연구 제30권 제1호,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pp.169-236.
- 류진혜·김정수 (1998), “취업의식조사를 통한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학생생활상담연구 제16권 제1호,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pp.233-257.
- 이경선 (200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용자 (2004), “대학생 요구조사 분석을 통한 진로지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5권 제4호, 한국상담학회, pp.1095-1110.
- 이재창 (1995),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제1권 제2호,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pp.81-99.
- 임정섭 (2008),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학생 욕구조사”, 학생생활연구 제33권,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pp.39-142.
- 조혜영 (2010),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 및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 비교연구”, 상담평가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상담평가학회, pp.15-30.
- 통계청(<http://kosis.kr>), 2011. 10. 28.
- Ginzberg, E. (1951), *Occupation and Choice*, Columbia University Press(NewYork).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Harper and Row(NewYork).

A Survey on the Employment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of Business Administration Affiliation: Focused on Daejeon-Chungnam Area

Hye-Suk LEE* · Sun-Yok SONG**

Abstract

Recent economic recession and job reduction have aggravated youth unemployment which is one of the biggest social problems. Thus,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on employment awareness of year 3 and year 4 university students in 4-year universities in Daejeon and Chungnam area per sex, grade and academic record. Based on the result, it attempted to figure out an employment vitalization plan that a university can take initiative. This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effectively for employment guidance and career counseling of universities.

These are some suggestions for employment vitalization plan.

First, it needs career determination and employment guidance program for year 1 and year 2 students. Second, as the most important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for students of business administration are "obtaining related qualification", "enhancing language ability" and "studying major and GPA(grade point average)", employment preparation for these areas are required to be expanded in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 Third, by expanding employment information center(department) that provide employment related service, it should consider not only to acquire various employment information but also to set diverse plans on how to deliver such information to students rapidly and accurately. Finally, active counseling and guidance instruction with professors in the department and high quality job finding through visiting industrial places are required to encourage employment awareness.

Keyword: employment awareness, business administration affiliation, employment vitalization plan

* Professor at Hyejeon College

** Associate Professor at Hyejeon College